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Vol. 30 No. 1, 70-78, February 2018

pISSN 1225-4886 / eISSN 2288-338X
https://doi.org/10.7475/kjan.2018.30.1.70

ORIGINAL ARTICLE Open Access

노인의 기본심리욕구와 지혜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남민정[1] · 조영문[2]

전남대학교 간호대학[1], 동신대학교 간호학과[2]

The Effect of Basic Psychological Needs and Wisdom on Successful Aging in the Elderly

Nam, Min-Jeong[1] · Cho, Young-Mun[2]

[1]College of Nursing,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wangju, Korea
[2]Department of Nursing, Dongshin University, Naju, Korea

Purpose: This study was designed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the elderly's basic psychological needs and wisdom on successful aging. **Methods:** The study participants were 150 elderly people aged at least fifty five years of age. The participants were drawn from six welfare centers serving the elderly located in Gwangju metropolitan city, Naju city, and Jeonnam province from February 2017 to March 2017. Data were collected by three self-report questionnaires measuring successful aging, basic psychological needs, and wisdom. For data analysis, SPSS/WIN 18.0 program was utilized including one-way ANOVA, independent t-test,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multiple regression. **Results:** This study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successful aging and basic psychological needs (r=.75 p<.001), wisdom (r=.74 p<.001). In addition, successful aging has a positive correlation with autonomy (r=.32 p<.001), competence (r=.77 p<.001), and relationship (r=.73 p<.001). The competency (β=.40), relationship (β=.18), wisdom (β=.34) have a 69% (F=96.38, p<.001) explanatory power for the successful aging in the elderly. **Conclusion:** The findings suggest the necessity to support the basic psychological needs of the elderly in order to support wise lives.

Key Words: Elderly, Aging, Needs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경제성장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018년에 14%를 넘는 고령사회로, 2026년에는 20.8%로 초 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된다[1]. 노인인구 증가와 더불어 노년기가 길어짐에 따라 노화에 따른 신체기능의 변화, 사회적 역할의 상실과 경제적 불안정 및 심리적 부적응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2,3]. 사망 후 방치되는 독거노인의 고독사, 노인자살, 노인학대, 빈곤, 우울 등 노인문제는 다양한 형태로 가정과 사회에서 증가하고 있다[2,3]. 그동안 노화와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는 생물학적 노화에 관련하여 신체기능과 인지기능 저하로 인한 질병이나 우울, 불안 등 부정적 측면이 대두되어 돌봄이 필요한 수동적 존재로 인식되어 왔다[4]. 하지만, 의학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경제가 성장하면서 물질적 풍요를 경험한 노인세대가 등장하게 되어 생물학적 노화로 인한 부정적인 측면만 아니라 노화의 긍정적

주요어: 노인, 노화, 욕구

Corresponding author: Cho, Young-Mun https://orcid.org/0000-0002-5555-6204
Department of Nursing, Dongshin University, 185 Geonjae-ro, Naju 58245, Korea.
Tel: +82-61-330-3596, Fax: +82-61-330-3580, E-mail: cymun@hanmail.net

Received: Oct 26, 2017 / Revised: Dec 28, 2017 / Accepted: Feb 3, 2018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인 측면도 부각되고 있다. 노화의 긍정적 측면에서 심리학적으로 노인이 일생을 통해 축적된 경험에 의한 행동과 지각기능, 자아에 대한 인식 등이 성숙하여 성공적인 삶의 토대를 가정하는 긍정적 가능성과 통합적 관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5].

성공적 노화는 인간 성장발달 과정인 노화과정에 따른 사회·심리적, 환경적, 생리적 변화에 개인 스스로가 성공적으로 잘 적응해 가면서 개인에게 주어진 발달과업을 성취하는 것이다[5]. 최근 선행연구에서 성공적 노화에 영향하는 다양한 요인 중 사회·심리적 지지가 중요하게 보고되고 있다[5,6]. Jeong 등은 한국인의 성공적 노화 관련 메타분석에서 노인의 자녀수, 직업, 연령, 주거형태 등의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건강상태, 질환 수, 신체기능, 인지전략 등의 신체건강 및 인지기능변인 보다는 심리적 안녕감, 지혜, 자기효능감과 자존감, 탄력성, 우울, 고독감 등의 사회·심리적 변인이 성공적 노화와 관련성이 더 높다고 보고하였다[7]. 이는 노화로 인하여 만성질병과 신체적 쇠퇴가 있을 수 있지만 다양한 경험과 내적 성숙으로 노년기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인식이 강조되고 있음을 나타낸다[4,5]. 이러한 맥락에서 노인의 성공적 노화 개념은 신체적 건강상태에서 점차 사회·심리적 특성 등으로 확대되고, 노인 삶에 대한 긍정적 관심과 나이 들어가면서 향상되는 심리·사회적 능력과 특질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4].

성공적 노화는 건강상의 쇠퇴에도 불구하고 사회·심리적 건강과 삶의 만족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성공적 노화의 시작은 노년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살아오면서 겪은 인생경험, 만난 사람들, 자신의 삶을 관리하고 자신을 돌보는데 있어 자신이 내린 결정의 축적과 노인 스스로 질 높은 삶을 유지하기 위한 삶의 태도와 관련되어 있다[8]. 그러므로 성공적 노화는 노화 과정에서 노인 스스로 자신과 사회에 대한 자기결정과 그 결정에 의한 성공적 적응과 수용의 과정이라 할 수 있으며, 성공적 노화를 위해서는 노화에 의한 신체적, 사회·심리적 변화 과정에 대해 자기결정에 의한 적응과 수용의 과정이 요구된다[5,8]. 따라서 노인의 성공적 노화를 위하여 신체적, 사회·심리적 변화의 과정에서 노인 스스로의 결정에 의한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심리학적 변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본심리욕구는 자기결정성 이론의 하위이론으로 개인의 내적 심리욕구에 따라 내재적 동기가 사회적 환경에 의해 촉진되거나 저해될 수 있으며, 환경과의 능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긍정적 능력을 발달시켜 심리적 안녕감을 결정한다[9]. 기본심리욕구는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인간이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보편적이고 생득적인 욕구로서 인간의 행동과 의도에 대한 결정은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심리욕구 충족에 의해 일어난다고 가정한다[9,10]. 자율성은 자신이 부여한 가치와 흥미에 근거하여 자신이 행동을 선택하고 조절해 나가는 것으로 자신의 선택과 결정이 존중받는다고 지각될 때 만족되며, 유능감은 자율적 행동에 의해 개인 스스로가 자신감과 효능감이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효율적으로 느끼기 위한 기본욕구이다[9,10]. 관계성은 개인이 사회적 맥락 속에서 타인과 유의미하게 연결되어 있고 상호작용을 통하여 만족을 느끼는 욕구이다[9]. 선행연구에서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의 기본심리욕구는 성공적 노화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으며[11], 노인의 사회적 지지와 자율적인 삶, 사회적 관계와 자기효능감은 성공적 노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5,7,12].

인간은 일생동안 심리·사회적 발달을 통하여 성숙이 이루어지며, 노년기에 자신의 삶을 통합하고 수용하는 자아통합을 이루게 되고, 자아통합을 이루지 못하게 되면 절망이라는 위기를 느끼고 이러한 위기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지혜를 획득한다[13]. 지혜는 인생발달의 단계에서 부딪치는 과제를 잘 해결함으로서 획득하게 되는 덕목으로 인간 삶의 전 과정에서 생기는 심리·사회적 요인의 균형적 통합을 통해 삶의 장면에서 드러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다[14,15]. 지혜로운 사람은 삶의 현장에서 긍정적-부정적 측면을 수용하고 자각하며 주어진 삶에 적응하며 만족한다[14,15]. 특히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의 지혜는 노화로 인한 신체적 기능저하, 역할상실, 죽음이 가까워짐에 따라 발생되는 삶의 위기를 극복하고 적응하여 긍정적으로 대처하게 하며 노년기에 심리적 안녕감과 적응을 통한 성공적 노화에 이르게 한다[13-15]. 선행연구에서 지혜의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 삶의 만족, 자아통합감이 높았고, 우울, 부정적 정서경험, 지각된 스트레스 정도가 낮았다[14]. 또한 지혜는 심리적 안녕감, 긍정적 대인관계, 자율성과 삶의 목적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16-18]. 따라서 지혜는 노년기의 지속적 발달을 의미하고, 심리적인 성숙과 적응을 통한 노인 스스로의 결정에 의한 삶의 적응과 수용의 의미를 담고 있다[14,15].

이와 같이 성공적 노화는 노인이 노화과정에서 사회·심리적 변화에 균형적 통합을 통한 자기결정과 그 결정에 의한 성공적 적응과 수용의 과정을 기반으로 한다[11,13]. 그러나 성공적 노화와 관련한 선행연구 중 노인의 성공적 노화를 노인이 인지하는 지혜와 자기결정성 이론의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의 기본심리욕구에 의한 성공적 적응과 수용의 과정으로 설명한 연구는 드물다.

이에 본 연구는 자기결정성 이론에 근거하여 노인의 기본심리욕구와 지혜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노인의 기본심리욕구와 지혜와 성공적 노화의 관계를 규명하여 성공적 노화에 대한 사회 · 심리학적 이해를 높이고 성공적 노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근거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노인의 기본심리욕구와 지혜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변수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로서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노인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공적 노화의 정도를 파악한다.
- 노인의 기본심리욕구, 지혜와 성공적 노화의 정도를 파악한다.
- 노인의 기본심리욕구, 지혜와 성공적 노화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노인의 기본심리욕구와 지혜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노인의 기본심리욕구와 지혜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관련변수들 간의 관계성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표집방법

본 연구의 대상자는 2017년 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광주광역시와 나주시 및 전라남도에 소재한 6곳의 노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60세 이상 남녀 노인 143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대상자의 구체적 선정기준은 인지적, 신체적 장애가 없고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본 연구의 설문내용을 이해하고 직접 답을 할 수 있는 자이다.

표본의 크기는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선형 회귀분석 연구에서 중간 효과크기 .15, 유의수준 α는 .05, 검정력(1-β)=.95, 예측변인 4개로 한 결과 124명이 나와 탈락률 15%를 고려하여 143명으로 하였다. 또한 배부된 총 143부의 설문지 중 설문의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설문 중 설문작성을 거절한 10부를 제외하고 133부를 분석하였다.

3. 연구도구

1) 성공적 노화

성공적 노화는 인간의 노화 과정에서 신체중심의 개념에서 탈피하여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기능의 수준이 높고, 삶의 만족이 높은 상태로[2], 본 연구에서는 Kim과 Shin이 개발한 성공적 노화척도를 도구개발자의 동의를 받고 사용하여 측정하였다[2]. 이 척도는 자기효능감을 느끼는 삶 13문항, 자녀 성공을 통해 만족하는 삶 8문항, 부부간의 동반자적 삶 3문항, 자기통제를 잘하는 삶 6문항으로 총 4개의 하위요인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성공적 노화를 이루고 있음을 의미하며, 응답 범주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항상 그렇다' 5점까지의 척도로, 선행연구에서 Cronbach's α는 .94였으며[2],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95였다.

2) 기본심리욕구

기본심리욕구는 자기결정성 이론(SDT)에 근거하여 인간이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보편적이고 생득적인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의 욕구이다[9]. 본 연구에서는 Ryan과 Deci가 개발한 기본심리욕구척도(Basic Psychological Need Scale; BPNS)를 토대로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Jung이 수정 · 보완한 기본심리욕구 척도를 Jung의 동의를 얻은 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10, 19]. 이 척도는 자율성(autonomy), 유능감(competency), 관계성(relatedness)의 3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요인 당 6문항으로 총 18문항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기본심리욕구가 잘 충족되었음을 의미하며[19], 응답 범주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척도로, 선행연구에서 기본심리욕구의 Cronbach's α는 .86이었으며, 각 하위요인별로 Cronbach's α는 자율성 .71, 유능감 .86, 관계성 .79였고[19],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9였으며, 각 요인별로 자율성 .71, 유능감 .90, 관계성.83이었다.

3) 지혜

지혜는 인간 삶의 전 과정에서 생기는 심리사회적 요인의 균형적 통합을 통해 삶의 장면에서 드러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으로[13,14] 본 연구에서는 Sung 등이 개발한 척도로 도구개발자의 동의를 얻은 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20]. 이 척도는 공감적 정서 11문항, 자기성찰 9문항, 인생극복 경험 7문항, 총 3개의 하위요인 2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노인이 인지한 지혜가 높음을 의미하며, 응답 범주는 '매우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까지의 척도로, 선행연구에서 Cronbach's α는 .92였으며[20],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90이었다.

4. 자료수집

자료수집을 위한 연구 장소 및 연구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본 연구자가 2017년 2월 장성군 노인복지관, 담양군 노인복지관, 나주시 노인복관, 광주광역시 동구 노인종합복지관, 광주광역시 서구노인종합복지관, 광주광역시 빛고을 노인건강타운 6곳의 노인종합복지관을 직접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해당 기관의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아, 세부적인 조사방법을 계획하였다. 자료수집은 2017년 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교육된 2명의 연구보조원이 해당 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하여 노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직접 연구의 목적, 소요시간, 연구참여자의 익명성과 비밀유지, 자료는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을 설명한 후, 참여 동의서에 서명을 받고,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하여 일대일 설문조사로 진행하였다. 설문의 응답시간은 20분 정도 소요되었고, 설문 후 응답자가 자신의 설문지를 봉투에 넣어 봉하도록 하였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공적 노화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 와 one-way analysis, of variance로 분석하였으며, 사후 검정 평균비교는 Scheffé test를 이용하였다. 또한 성공적 노화와 관련변수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로 성공적 노화와 관련변수의 설명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단계적 다중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6.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전남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IRB No. 1040198-161222-HR-116-03)을 받은 후 수행하였다. 자료수집 전 본 연구자가 해당 노인종합복지관의 기관장과 해당 부서장을 직접 방문하여 기관의 절차에 따라 허락을 받고, 자료수집은 교육된 2명의 연구보조원이 연구대상자 개개인에게 연구의 목적, 소요시간, 참여자의 익명성, 비밀유지와 자료는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을 설명한 후, 참여 동의서에 서명을 받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공적 노화 차이

본 연구대상자는 총 133명으로 평균연령은 70.92±6.10이었으며, 남자가 70명(52.6%)으로, 연령별 분포는 70세에서 79세가 73명(54.9%)로 가장 많았으며, 60세에서 69세가 49명(36.8%), 80세 이상이 11명(8.3%)이었다. 결혼상태는 110명(82.7%)이 기혼자로 가장 많았고, 21명(15.8%)이 이혼이나 사별을 하였다. 함께 생활하는 가족의 거주형태는 배우자와 거주하는 대상자가 80명(60.2%), 배우자,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대상자들이 27명(20.3%),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대상자가 12명(9%), 혼자가 14명(10.5%) 순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자녀 수는 평균 2.95±1.16으로, 3~4명이 72명(54.1%)로 가장 많았으며, 1~2명이 52명(39.1%), 5명 이상이 9명(6.8%) 순이었다. 종교는 기독교 30명(22.6%), 가톨릭 36명(27.1%), 불교 28명(21.1%)로 가톨릭 신자가 가장 많았으나 대체적으로 균등하게 분포하고 있었다. 또한 대상자의 대부분인 102명(76.7%)이 직업이 없었고, 한 달 용돈이 51만원 이상의 경우가 52명(39.1%)으로 가장 많았으며, 31만원에서 50만원이 40명(30.1%), 10만원에서 30만원이 35명(26.3%), 10만원 이하가 6명(4.5%) 순이었다. 현재의 건강상태에 대하여 64명(48.1%)의 대상자가 보통으로, 47명(35.4%)의 대상자들은 건강하거나 매우 건강하다고 답변하였다(Table 1).

또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공적 노화의 차이는 교육($F=8.88$, $p<.001$)과 건강상태($F=4.97$, $p=.001$)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사후 검증결과 중학교와 고등학교보다 대학졸업 이상 그룹에서, 건강상태를 보통으로 응답한 그룹보다 건강하다고 응답한 그룹에서 성공적 노화의 정도가 유의미하게 높았다(Table 1).

2. 성공적 노화, 기본심리욕구, 지혜의 정도

대상자의 성공적 노화는 총점150점 대비 평균 96.59±16.44로 중간 이상의 높은 점수를 보였다. 또한 대상자가 지각한 기본심리욕구는 총점 90점 대비 평균 62.91±9.30 으로 중간 이상이었고, 각 하위범주를 살펴보면 총점 30점 대비 자율성

Table 1. Difference in Successful Aging according to Participants' General Characteristics (*N*=133)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M±SD	Successful aging	
				M±SD	t or F (*p*)
Gender	Male	70 (52.6)		96.89±16.24	0.22 (.826)
	Female	63 (47.4)		96.25±16.79	
Age(year)	60~69	49 (36.8)	70.92±6.10	99.78±13.61	3.39 (.056)
	70~79	73 (54.9)		93.40±17.80	
	≥80	11 (8.3)		103.55±14.86	
Marital status	Single	2 (1.5)		113.00±15.55	2.30 (.104)
	Married	110 (82.7)		97.33±15.92	
	Divorced or bereaved	21 (15.8)		91.14±18.19	
Education level	≤Elementary[a]	12 (9.0)		91.67±16.38	8.88 (<.001)
	Junior high school[b]	32 (24.1)		86.81±14.27	b, c<d †
	High school[c]	46 (34.6)		97.20±17.07	
	≥College[d]	43 (32.3)		104.58±13.10	
Religion	Protestant	30 (22.6)		96.70±17.10	1.07 (.362)
	Catholic	36 (27.1)		99.58±18.40	
	Buddhist	28 (21.1)		92.10±17.55	
	Others	39 (29.3)		96.90±12.75	
Living type	Alone	14 (10.5)		89.21±16.27	1.42 (.237)
	With spouse	80 (60.2)		97.89±16.62	
	With spouse & offspring	27 (20.3)		98.26±15.41	
	With offspring	12 (9.0)		92.75±16.79	
Number of children	1~2	52 (39.1)	2.95±1.16	93.65±16.03	1.37 (.257)
	3~4	72 (54.1)		98.56±16.44	
	≥5	9 (6.8)		97.78±18.18	
Job	Yes	31 (23.3)		97.10±16.97	0.20 (.844)
	No	102 (76.7)		96.43±16.36	
Allowance per month (10.000 won)	≤10	6 (4.5)		87.83±17.74	0.69 (.559)
	10~30	35 (26.3)		97.86±14.15	
	31~50	40 (30.1)		95.85±17.16	
	≥51	52 (39.1)		97.31±17.30	
Health status	Very bad[a]	5 (3.8)		102.60±20.48	4.97 (.001)
	Bad[b]	17 (12.8)		93.06±14.48	c<d †
	Moderate[c]	64 (48.1)		91.61±15.83	
	Good[d]	42 (31.6)		103.21±15.25	
	Very good[e]	5 (3.8)		110.60±11.60	

† Post-hoc: Scheffé test.

21.53±3.23, 유능감 20.02±4.21, 관계성 21.37±3.73로 중간 이상이었다. 지혜 정도는 총점 135점 대비 평균 80.05±8.50으로 중간 이상이었다(Table 2).

Table 2. Level of Basic Psychological Need and Wisdom (*N*=133)

Variables	M±SD	Min~Max	Possible range
Successful aging	96.59±16.44	52~132	30~150
BPN	62.91±9.30	39~90	18~90
Autonomy	21.53±3.23	15~30	6~30
Competency	20.02±4.21	10~30	6~30
Relatedness	21.37±3.73	13~30	6~30
Wisdom	80.05±8.50	52~102	27~135

BPN=basic psychological needs.

3. 성공적 노화와 기본심리욕구, 지혜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성공적 노화는 기본심리욕구(r=.75, p<.001)와 지혜(r=.74, p<.001)에 대하여 정적상관관계가, 기본심리욕구는 지혜(r=.73, p<.001)에 대하여 정적상관관계가 있었다. 또한 성공적 노화는 기본심리욕구의 하위변수인 자율성(r=.32, p<

.001). 유능감(r=.77, p <.001), 관계성(r=.73, p <.001)과 정적상관관계, 지혜는 기본심리욕구의 하위 요인인 자율성(r=.40 p <.001), 유능감(r=.68, p <.001), 관계성(r=.69, p <.001)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Table 3).

4.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과 지혜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다중공선성, 독립성, 정규성, 등분산성의 조건을 검정하였다. 다중공선성을 검증한 결과 공차한계(tolerance)가 .37~.47로 0.1 이상이며,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VIF) 역시 2.11~2.78로 10을 넘지 않아서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제외하였다. 또한 오차의 자기상관(독립성)을 검정한 결과 Watson 통계량이 2.12로 2에 가까워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잔차분석 결과 표준화된 잔차의 범위가 -2.58~2.64로 등분산성을 만족하였고, 정규성(normality)도 확인되었다.

노인의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 지혜를 예측변수로 성공적 노화를 준거변수로 하여 단계적 다중회귀분석 결과 노인의 성공적 노화를 설명하는 예측요인은 유능감(β=.40, p <.001), 지혜(β=.34, p <.001), 관계성(β=.18, p =.025)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유능감이 59%로 가장 높은 설명력을 보였고, 유능감, 지혜, 관계성은 노인의 성공적 노화를 69%설명하였다(F=96.38, p <.001)(Table 4).

논 의

본 연구는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자기결정성 이론에 근거한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의 기본심리욕구와 지혜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대상자의 성공적 노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시도하였다. 본 연구결과 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은 유능감, 지혜, 관계성 순이었으며, 노인의 성공적 노화를 69% 설명하였다.

본 연구에서 교육수준에 따른 성공적 노화의 정도는 중·고등학교 졸업학력을 가진 대상자보다 대학졸업 학력을 가진 대상자에서 성공적노화의 정도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중학교 이상 교육수준이 성공적 노화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선행연구와 일부 유사한 결과로[21], 대졸 이상의 높은 교육수준은 경제적 안정이나 사회적 지지가 높아 심리적 안정감이 증가하기 때문에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7]. 또한 건강상태를 중간정도로 지각한 노인보다 양호하다고 지각한 노인의 성공적 노화 정도가 높았다. 이는 선행연구와 일부 유사한 결과로 노인이 건강상태를 양호하다고 지각할수록 노화로 인한 만성질환과 신체적 기능저하에 긍정적으로 적응하고 일상생활의 문제를 잘 대처하여 심리적 안녕과 성공적 노화에 이르는 것으로 생각된다[22-24]. 그러므로 노화에 따른 신체적 기능저하를 자연스러운 신체현상으로 받아들이고 건강상태를 양호하게 평가할 수 있는 심리적 지지와 관련 간호중재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Table 3. Correlations between Successful Aging and Other Variables in the Elderly (*N*=133)

Variables	Successful aging	BPN	Autonomy	Competency	Relatedness	Wisdom
	r (*p*)	r (*p*)	r (*p*)	r (*p*)	r (*p*)	r (*p*)
Successful aging	1					
BPN	.75 (<.001)	1				
Autonomy	.32 (<.001)	.68 (<.001)	1			
Competency	.77 (<.001)	.89 (<.001)	.37 (<.001)	1		
Relatedness	.73 (<.001)	.89 (<.001)	.42 (<.001)	.77 (<.001)	1	
Wisdom	.74 (<.001)	.73 (<.001)	.40 (<.001)	.68 (<.001)	.69 (<.001)	1

BPN=basic psychological needs.

Table 4. Influencing Factors on Successful Aging in Elderly (*N*=133)

Variables	B	SE	β	t	*p*	Cum. R^2	F (*p*)
(Constant)	-4.69	7.72		-0.59	.550		
Competency	1.53	0.31	.40	4.81	<.001	.59	190.93 (<.001)
Wisdom	0.67	0.14	.34	4.78	<.001	.67	137.56 (<.001)
Relatedness	0.82	0.36	.18	2.27	.025	.69	96.38 (<.001)

Cum. R^2=Cumulative R^2.

그러나 선행연구와 달리 본 연구에서 결혼상태, 동거가족, 자녀수, 한 달 용돈 등과 성공적 노화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특히 선행연구대상자의 평균 한달 수입이 51만원에서 100만원이거나, 80% 이상이 월수입이 100만원 이하였는데, 본 연구대상자의 한 달 용돈이 51만원 이상이 52명(39.1%), 전체 대상자 중 92명(69.2%)이 31만원 이상인 도심의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인 것과는 다른 점이다[22]. 이는 같은 변인이라 할지라도 각 연구마다 대상자를 편의 추출하여 대상자들이 처해있는 사회·환경적 조건과 일반적 특성에 따라 변인의 효과가 다르기 때문이다[7,15,23]. Jeong 등의 성공적 노화에 대한 메타분석연구는 대상자가 처해 있는 사회·환경적 조건이 상이하기 때문에 인구통계학적 변인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효과크기가 .05로 영향이 가장 작다는 연구결과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15]. 그러므로 한국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대한 합의된 개념에 의한 측정도구로 연구대상자를 무작위 추출하거나 외생변수를 층화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기본심리욕구는 성공적 노화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는데 이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중 심리학적 변인의 평균효과크기가 가장 크다는 선행연구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7,11,15]. 기본심리욕구와 하위 변수인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은 성공적 노화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는데 이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며[11], 성공적 노화가 사회적 지지와 자율적인 삶과 정적상관관계가 있었고[5], 자기효능감이 성공적 노화와 긍정적 관계있다는 연구결과와도 유사하다[12].

노인이 지각하는 유능감의 정도는 노화 과정에 따른 신체적 기능 저하에 의한 신체적 한계에 긍정적으로 적응하고 대처하여 성공적 노화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12]. 인간의 행동은 해낼 수 있다는 자기효능감과 같은 유능감에 의해 변화하기 때문에 노인의 유능감이 높을수록 문제해결을 위해 스스로의 결정에 의한 자기결정성 행동이 유발되고 삶에 대하여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태도를 보인다[9,10]. 또한 노인이 인지하는 관계성은 노인의 건강에 대한 인식과 적응, 인지기능, 심리적 안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6,8,25]. 특히 한국노인의 경우 가족과 친구 등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의미와 심리적 안정감을 찾는 경향이 강하여 노인을 둘러싼 사회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심리적 영향을 받는다[6,25]. 또한 자율성은 자기를 표현하며 자신의 목표를 스스로 설정하고 선택하여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결정하려는 욕구로, 자율성이 높을수록 외부의 영향력을 받을 때 보다 수행능력과 성취수준이 높아지고, 흥미와 즐거움을 경험하게 된다[9,10]. 따라서 노인의 자율성이 높을수록 노화로 인하여 발생되는 생리학적, 사회·심리학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행능력과 성취수준이 높아지고, 성공적인 적응과 수용의 과정을 거쳐 삶의 질과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준다[26]. 삶의 질과 심리적 안녕감의 증가는 내재적 동기에 근거한 삶의 목표를 추구하여 사회·심리적 건강, 성장과 적응, 주관적 만족의 경험과 자아실현을 위한 자기결정성 행동을 증진시켜 성공적 삶에 이르게 한다[9,26,27].

따라서 노인이 인지하는 기본심리욕구는 노화과정을 질병과정이 아닌 자연스러운 건강과정으로 여기며 노인이 심리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자율적 삶과 자율적 행동에 의한 유능감,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한 관계성의 만족을 통해 노화에 의한 부정적 부적응의 상태를 긍정적인 자기결정성 적응과 수용의 삶을 통해 성공적 노화에 이르게 한다[13,28]. 그러므로 노인의 기본심리욕구는 성공적 노화를 위한 심리적 변인이며 노인의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 등 기본심리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사회·심리적 지원체계의 개발과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 자율성은 성공적 노화를 예측하지 못하였다. 이는 노인의 주된 문제가 건강, 신체적 불편감 경제적 어려움, 고독, 만족할 만한 여가활동의 결여 등인 점을 볼 때 한국노인의 자율성이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 제한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4]. 선행연구에 의하면 노인이 건강상태를 나쁘다고 지각할 경우 사망률이 더욱 높아지고, 여명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심리적 안녕감이나 삶의 만족도, 성공적 노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24]. 그러나 본 연구와 같이 83.5%(111명)의 대상자가 건강상태를 보통 이상으로 지각한 경우 성공적 노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선행연구가 전무하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근거로 하여 노인이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여 선택하고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여 행동하는 자율성이 성공적 노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추후 연구를 통하여 노인이 인지하는 주관적, 객관적 건강상태에 따른 자율성의 정도를 파악하여 자율성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지혜는 성공적 노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 지혜로운 사람은 삶의 긍정적 의미와 목적을 포함한 삶의 본질을 이해하기 때문에 삶의 만족도가 높고, 노화로 인한 신체적 심리적 변화에도 잘 적응하고 긍정적으로 대처하여 성공적 노화에 이르는 것으로 판단된다[15,18,29]. 지혜는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 등의 기본심리욕구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는데 이는 지혜가 자율성, 자기존중감,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성, 그리고 삶의 만족과 긍정적 관

계가 있다는 선행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16,18,30]. 지혜는 연대기적 연령보다 인생의 다양한 장면에서 발생되는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의 결정에 의한 선택과 경험의 축적을 통하여 형성된다[14]. 그러므로 지혜로운 노인은 노화로 인한 삶의 변화에 더 잘 적응하고 긍정적인 노화태도와 자아통합감을 형성하여 심리적 안녕감에 이르게 된다[13,14]. 특히 지혜는 타인과의 관계성 속에서 발생하여 다시 타인과의 관계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족과 친구를 포함한 타인과의 관계성을 통하여 삶의 의미를 찾고 심리적 안녕감을 얻는 한국 노인의 경우 관계성 증진을 통해 지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14,15,24].

이상의 본 연구에서 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일반적 특성 중 학력과 건강상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기본심리욕구 및 하위 요인인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과 지혜는 성공적 노화에 대하여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고 자율성을 제외한 변수 간 상관정도 역시 매우 높았다. 또한 노인의 성공적 노화를 예측하는 변인은 유능감, 지혜, 관계성 순이었으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변수는 유능감이었고 높은 설명력을 나타냈다.

본 연구는 간호학적으로 자기결정성 이론에 근거하여 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사회·심리적 영향을 살펴본 최초의 연구로서 기본심리욕구와 지혜가 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점에서 의의가 있다. 따라서 사회·심리적 측면에서 노인이 성공적 노화에 이르기 위해서는 유능감, 관계성 만족을 통하여 지혜를 활성화하기 위한 간호중재 전략과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노인의 노화로 인한 신체적 기능 저하를 자연스러운 신체현상으로 받아들이고 건강상태를 양호하게 평가할 수 있는 심리적 지지와 관련 간호중재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노인의 기본심리욕구와 지혜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관련변수들 간의 관계성을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결과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공적 노화는 학력과 건강상태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성공적 노화는 기본심리욕구와 하위 변수인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 및 지혜에 대하여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지혜는 기본심리욕구와 기본심리욕구의 하위 요인인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또한 기본심리욕구의 하부요인인 유능감, 관계성, 지혜가 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대하여 69%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본 연구는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심리적 변인으로 유능감, 관계성, 지혜와 성공적 노화와의 관계를 최초로 파악하여 설명하였으며, 노인이 성공적 노화에 이르기 위해서는 사회·심리적 측면에서 유능감, 관계성의 기본심리욕구 충족을 지원함으로써 심리적 안녕감과 현명한 삶을 회복시켜야 할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추후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의 성공적 노화를 위해서는 자기결정성 이론에 근거한 유능감, 관계성의 기본심리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사회·심리적 지원체계와 관련 프로그램 개발을 제언한다. 둘째, 추후 연구를 통하여 노인이 인지하는 주관적, 객관적 건강상태에 따른 자율성과 성공적 노화와의 관계를 다시 살펴볼 것을 제언한다. 셋째, 자기결정성 이론의 기본심리욕구는 그 자체가 문화보편적인 인간의 생득적인 욕구이지만 하위 욕구인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은 성별, 문화 등의 환경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10]. 따라서 추후 연구를 통하여 한국노인에 적합한 기본심리욕구 척도개발을 제언한다.

CONFLICTS OF INTEREST

The authors declared no conflict of interest.

ORCID

Nam, Min-Jeong https://orcid.org/0000-0002-5676-7353
Cho, Young-Mun https://orcid.org/0000-0002-5555-6204

REFERENCES

1. Statistics Korea. Statistics for estimated future population 2015 in Korea [Internet]. Seoul: Statistics Korea; 2015 [cited 2016 April 20]. Available from: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1/index.board?bmode=read&aSeq=348565
2. Kim MH, Shn KR. The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Successful Aging" scale for Korean elderly.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2005;25(2):35-52.
3. Kim AL. The effect of psychological well-being and ego integrity on successful aging of elders-focused on the elderly in Seoul.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013;15(4):2041-54.
4. Bae JH. A study on psychological factors for the successful aging [master's thesis]. Deagu: Yeungnam University; 2017.
5. Kim HY, Chung BK. A research on demographic parameters, life style and sociopsychological factors related to subjective successful aging of the elderly in rural areas.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2015;35(2):295-313.

6. Jeon BJ. Relationship between health status, successful aging by family type of elderly and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network.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Wellness. 2017;12(1): 203-16. https://doi.org/10.21097/ksw.2017.02.12.1.203
7. Jeong YJ, Yu NY, Kim BA, Shin HJ, Chong YS. A meta-analysis on variables related with successful aging.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2014;34(4):781-97.
8. Kim MJ, Kim KB. Influenc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for the middle aged adults and elderly.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2013;19(2):150-8. https://doi.org/10.14370/jewnr.2013.19.2.150
9. Deci EL, Ryan RM. Self-determination theory: a macrotheory of human motivation, development, and health. Canadian Psychology. 2008;49(3):182-5. https://doi.org/10.1037/a0012801
10. Ryan RM, Deci EL.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the facilitation of intrinsic motivation, social development, and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2000;55(1):68-78. https://doi.org/10.1037/0003-066X.55.1.68
11. Kim NS. Effects of vital power based on psychological needs satisfaction on successful agin in elderly participants of life time sports [master's thesis]. Yongin: Dankook University; 2014.
12. Kim SL, Oh HO. Relationship among self-efficacy and ego integrity and successful aging of elderly participating in physical activity. The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2016; 55(6);509-20.
13. An JS, Chong YS, Seo SG. The relationships among the matured aging attitude, successful aging, and psycho-social maturation: the examination of the matured aging.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013;26(2):127-43.
14. Kim MH, Min KH. Age differences of wisdom and its correlation with successful aging among middle-aged and elder adults.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2010;30 (3):947-71.
15. Sung KW. Relation of successful aging and wisdom in Korean older adult.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Nursing. 2011; 13(1):48-57.
16. Helson R, Srivastava S. Three paths of adult development: conservers, seekers, and achiev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001;80(6):995-1010. https://doi.org/10.1037/0022-3514.80.6.995
17. Ardelt, M. Empirical assessment of a three-dimensional wisdom scale. Research on Aging. 2003;25(3):275-324. https://doi.org/10.1177/0164027503025003004
18. Choi SH, Song SH. The effect of elderly wisdom on life satisfaction, self-esteem, psychological wellbeing and quality of child relationship.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4;12(12): 49-59. https://doi.org/10.14400/JDC.2014.12.12.49
19. Jung YS. The relationships among basic psychological needs, sensation seeking, flow, and exercise addiction of leisure sports participants [dissertation]. Seoul: Sungkyunkwan University; 2010.
20. Sung KW, Lee SY, Park JH. Scale development of wisdom among Korean elderly.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2010;30(1):65-80.
21. Lee SJ, Song MS. Successful aging of Korean older adults based on Rowe and Kahn's model: a comparative study according to the use of community senior faciliti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015;45(2):231-9. https://doi.org/10.4040/jkan.2015.45.2.231
22. Kim HK. Gender difference of the Influencing factors on successful aging among rural community-dwelling Korean elders.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Nursing. 2012;32(3):819-34.
23. Han SY, Yun SN. Successful aging and the influencing factors in the Korean elderly: focused on family support.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2015;26(4): 372-9. https://doi.org/10.12799/jkachn.2015.26.4.372
24. Heo CM, An SH. Relationship among subjective health, psychological well-being and successful aging of elderly participating in physical activity. The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2014;53(6):357-69.
25. Jeong YJ, An JS. The effects of family relationship on successful aging of the elderly men.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2010;30(2):535-50.
26. Lee SH, Kim H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on self-care behavior and quality of life in older adults with diabetes using citizen health promotion center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017;47(4):514-25. https://doi.org/10.4040/jkan.2017.47.4.514
27. Kim SS. The structure relationship among basic psychological needs, life goals, psychological wellbeing and depression.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2015;29(1):1-25. https://doi.org/10.17286/KJEP.2015.29.1.01
28. Mitchell BA. Successful aging: integrating contemporary ideas, research findings, and intervention strategies. Family Relations. 2002;51(3):283-4.
29. Ardelt M, Edwards CA. Wisdom at the end of life: an analysis of mediating and moderating relations between wisdom and subjective well-being.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2016;71(3):502-13. https://doi.org/10.1093/geronb/gbv051
30. Ardelt M. Wisdom as expert knowledge system: a critical review of a contemporary operationalization of an ancient concept. Human Development. 2004;47(5):257-85. https://doi.org/10.1159/000079154